

---

#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위기의 가톨릭교회에서 정통성과 카리스마

호세 페르난데스 베가

아르헨티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CONICET) 연구원이자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교수

---

원제와 출처: José Fernández Vega, “De Bergoglio a Francisco - Legitimidad y carisma en la crisis de la Iglesia”, en *Nueva Sociedad*, No. 253, septiembre-octubre de 2014, pp.17-27.

핵심어: 카리스마, 정통성의 위기, 권력, 포퓰리즘, 마키아벨리, 호르헤 베르고글리오, 베네딕토 16세, 가톨릭교회

## 세상의 종말과 종말의 시대 사이에서

1990년대 중반 움베르토 에코는 종말의 조짐이 종교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전통의 한 부분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sup>1)</sup> 임박한 20세기의 종말은 최악의 세속적 조짐(기후 변화의 결과, 전산망 마비의 공포, 소외된 지역의 사회적 폭력, 에너지원의 고갈, 기독교 시대 첫 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지배한 세상의 종말 등 암울한 상상력이 추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되짚어 보기에 적절

---

1) Umberto Eco y Carlo Maria Martini, *¿En qué creen los que no creen?*, Booket, Madrid, 2007, p.17.

한 기회였다.

에코는 예수회 소속이자 신약성경 전문가인 카를로스 마리아 마르티니(1927~2012) 추기경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러한 점을 되짚었다. 마르티니 추기경은 유럽을 통틀어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밀라노 대주교구를 책임지고 있었다(밀라노 대주교구를 22년간 맡았다). 두 사람은 윤리와 정치에 관한 서신을 주고받았다.

2005년 콘클라베에서는 마르티니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마르티니 추기경은 교황이 되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표시로 지팡이를 짚고 콘클라베에 참석함으로써 교황에 선출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로 인해 마르티니 추기경의 추종자들은 예수회의 일원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호르헤 베르고글리오에게 마음을 돌렸는지도 모른다. 베르고글리오는 당시 결선투표에서 당선자인 요제프 라칭거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요제프 라칭거는 교황 명을 베네딕토 16세로 정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베네딕토 15세가 그랬듯이, 자신도 유럽과 기독교의 위기 해결에 전념하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다.

독일 출신 고위성직자 요제프 라칭거가 교황이 되었을 무렵 가톨릭교회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온갖 추문(특히 섹스 및 금융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고, 또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임자이자 보수파를 대표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장기 투병은 사기 저하와 지도력 약화를 가중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추기경이었을 때 뮌헨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와의 별인 논쟁과<sup>3)</sup> 세 편의 멋진 교황회칙을 통해 기억되듯이, 국제적 수준의 지성인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2) Marco Politi, *Francesco tra i lupi. Il segreto di una rivoluzione*, Laterza, Roma, 2014, p.19.

3) Jürgen Habermas y Joseph Ratzinger, *Entre razón y religión. Dialéctica de la secularización*,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df, 2008.

연구에만 몰두할 뿐 날로 심각해지는 가톨릭교회 이미지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난받았다.

에코가 비유적으로 말한 종말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시대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이탈리아 사상가 조르조 아감벤이 다시 꺼내 들게 된 계기는 2013년 2월 베네딕토 16세의 급작스러운 사임이었다.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신학적 근거를 다시 끌어들이면서 시대의 종말 문제가 희미하게 대두하던 때였다.<sup>4)</sup> 아감벤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는 사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2009년 초의 일인데, 이때 베네딕토 16세는 1294년 외부 압력에 못 이겨 교황 자리에서 물러난 첼레스티노 5세의 묘에 교황 휘장을 바친 적이 있었다(단테는 첼레스티노 5세가 사임한 것을 비겁한 행위로 간주하여 작품 『신곡』에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베네딕토 16세는 오랜 심사숙고 끝에 결단한 것이지만, 사임할 때 라틴어로 쓴 글을 통해 직접 밝혔듯이 그 결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내린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사임을 규정에 맞추었다. 교황보다 더 젊은 유럽 왕 가운데 일부는 비슷한 시기에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75세의 베아트릭스 네덜란드 여왕이 베네딕토 16세보다 앞서 1월에 양위했고, 79세의 알베르 벨기에 국왕도 7월에 양위했다. 유럽의 국왕과 달리 베네딕토 16세에게 후계자 지명권은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여러 유형의 비판에 직면한 왕실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유럽 국왕이 양위했듯이, 베네딕토 16세 또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비록 베네딕토 16세에게 자신의 사임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근거는 있었지만, 사임이 불러온 모든 결과가 실질적 차원에서 다 예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감벤에 따르면, 50년 전 베네딕토 16세가 신학자였을 때, 가톨릭교회는 내부에 선

4) G. Agamben, *El misterio del mal. Benedicto XVI y el fin de los tiempos*, Adriana Hidalgo, Buenos Aires, 2013.

과 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사상가 티코니우스에 관한 학술논문을 쓴 적이 있었다. 이 논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톨릭교회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후일 교황으로 즉위한 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일련의 문제(충직한 신도의 이탈, 사제의 소명 의식 결여, 점점 노골화하는 교황청 내의 음모, 예전 성직자의 성 추문과 새롭게 드러난 성 추문 등, 가톨릭교회를 쪼먹는 일)를 예견한 것이다.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기밀문서의 언론 누출이었다. 아감벤의 주장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는 사임을 통해 서구의 모든 왕실이 직면한 심각한 정통성 위기가 권위와 정의의 영원한 이상에서 발원하는 모든 정통성의 대원천인 로마교황청에도 닥쳤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치는 불변의 자연법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의 불안정성, 권리의 형식성 및 변화하는 규범과 대조되기도 하였다.

아감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티코니우스의 프리즘과 신학적 프리즘을 결합하여 살펴봄으로써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찾아냈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차원에서 베네딕토 16세의 획기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16세의 “용기 있는” 사임은 세속사(世俗事)에만 사로잡혀 있는 가톨릭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간과하고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종말론의 신비이다.

종말론에서는 종말 시대(선과 악의 싸움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시간의 종말 혹은 최후 심판의 순간이 아니라)의 선악 투쟁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신비스러운 것’이란 숨겨진 무엇, 즉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커다란 무대로 사용하는 역사적 드라마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미 전개되고 있는 종말 시대는 메시아적 시간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메시아적 시간이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

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사람들의 혼한 진단법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법의 부재 또는 혼란도 포함된다.

아감벤은 가톨릭교회가 ‘경제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근심걱정, 목전의 일, 권력, 욕망, 세속의 부에 빠지는 바람에 최후 바로 직전의 시간(에코가 말한 최후의 종말적 시간과는 다르다)인 메시아적 시간 속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망각해버렸다고 설명한다. 메시아적 시간이란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의 변화, 바꿔 말해서 우리 자신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한 뒤에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다.

메시아적 시간이란 남아 있는 시간 즉, 그리스도교의 도래에 관한 중대한 알림인 부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근본적인 변화이다.<sup>5)</sup> 베네딕토 16세의 양위는, 실패라기보다는 가장 큰 업적이며,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톨릭교회의 ‘선한 세력’(fuerzas buenas)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긴 셈이다.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은 후임자의 정치적 입지를 닦아준 셈이다. 왜냐하면 로마교황청 내부의 음모자 입지가 약해졌고, 가톨릭교회가 온갖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였으며, 가톨릭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추기경들은 사상 최초로 예수회 출신, 중남미 출신 교황을 선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 권력과 영광

“교황은 도대체 몇 개의 사단(師團)을 보유하고 있는가?” 스탈린이 던졌다는 이 질문을 단순한 농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이라는 것을 교황이 지닌

5) Giorgio Agamben, *La Chiesa e il regno, Nottetempo*, Roma, 2010, p.10.

물리적 힘, 즉 군사력으로만 파악한 스탈린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초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 거의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한 장(章) 전체를 교회국가의 예외적인 본질을 기술하는 데 할애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교회국가의 군주는 어떤 유형의 통치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도구인 무기와 법률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국가 군주는 막강한 종교적 전통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주는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를 지키지 않으며, 백성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통치하지 않는 유일한 군주이다 [...] 오직 이러한 왕국은 안전하고 행복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靈)이 닿을 수 있는 이성보다 더 우월한 이성으로 통치되므로 나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sup>6)</sup> 따라서 비록 모든 군주는 종교가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교회라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 영역을 종교 영역에서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근대적인 정치사상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교회를 정치의 영역 밖에 두었다는 점에서 단점도 없지 않다.

마키아벨리 시대부터 국제 문제에 대한 교황의 직접적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교황의 영향력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거나 순전히 상징적인 차원으로만 전락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황의 영향력은 점점 선언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황의 권력은 어떻게 되어 있나? 권력의 본질 문제는 베르고글리오를 26대 교황으로 깜짝 선출한 데서도 드러난다. 베르고글리오

6) Nicolás Maquiavelo, *El príncipe*, Tecnos, Madrid, 1998, p.44. 이 책에 따르면 무기와 돈을 통해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적 권력을 프랑스, 베네치아와 함께 이탈리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만든 알렉산데르 6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톨릭교회가 권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국가가 분열된 상황을 교회 탓으로 돌렸고,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은 추기경들의 야망 탓으로 돌렸다.

의 교황 즉위로 인해, 스탈린이 제기한 질문이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며, 정치이론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일련의 문제점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견해도 다시 제기된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지리적으로 이웃인 이탈리아의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바티칸은 '비무장 예언자'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이 비무장 예언자는, 마키아벨리라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sup>7)</sup> 스탈린이라면 교황이나 정적 트로츠키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해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을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많은 사람을 평화를 위한 철야 기도에 불러 모으고 시리아에 대한 무력 공격 반대와 관련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교감하는 등 외교적 공세를 펼치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새 교황 선출은 가톨릭교회 권력 구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차원의 세계 정치에서도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모국 아르헨티나에서도 대단한 반향을(많은 경우, 이 나라 풍습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일으켰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sup>8)</sup>

베르고글리오스는 프란치스코를 새 교황 명으로 정하였다.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 호기심을 느꼈고, 신도는 가톨릭교회가 변하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베르고글리오스를 교황에 임명한다는 것은 퇴락한 교황 이미지에 급작스러운 신뢰를 부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중매체는 그간 가톨릭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었던 바로크적 가식을 교황청 스스로 벗는 등의 스타일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도하였다. 비판자들은 프란치스

7) 부정적인 예를 들자면 처형당한 사보나롤라이다.

8) 다양한 성향의 아르헨티나 정치인, 연예계와 체육계 인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줄지어 교황청을 찾아오는 것은 이제 흔한 모습이 되었다.

코 교황이 교구에서만 일했고 뛰어난 신학적 업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저평가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대중 친화성, 도덕적 주관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은 전임 교황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sup>9)</sup>

보수주의자 역시 바티칸 왕조와 교황의 상징물이 침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교황이 “거리의 사제”(베르고글리오 본인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라고 몸을 낮춘다거나 대중과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한다거나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것도 싫어한다(교황은 언론에 취재거리를 많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베르고글리오가 아르헨티나의 추기경 시절 대중적 측면이 매우 약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폴리티에 따르면, 교리문답(제2004항)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임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대중과 처음으로 만날 때부터 성령이 부여해준 ‘지위 은총’(gracia de estado)을 누리고 있는 듯하다. 첫 해외 순방지인 브라질에서 수많은 젊은이를 불러모았고, 또 이민자에 대한 ‘무관심의 글로벌화’ 및 ‘실존적 주변부’라고 지칭한 사항을 고발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을 방문하여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 지정학과 카리스마

폴리티의 주장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는 개인사와 결부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개인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 M. Politi, ob. cit., p.140.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정한 의미로 대도시에서 출생한 최초의 교황이긴 하지만, 역대 교황 중에 두 사람만이 청년 시절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는 교황의 이미지 때문에 신도와 비신도를 막론하고 친근한 인상을 받고(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에서조차 깜짝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전 세계 언론매체는 표지인물, 특집 형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잇달아 쏟아낸다. 비록 베를루스코니 그룹 소속의 언론인 가운데 일부는 로마교황청이 보수주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포퓰리즘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교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간지 『우리 교황』(Il Mio Papa)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중적 인기를 관망하면서 전 세계와 교황의 밀월관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sup>10)</sup>

국제적 기관으로서 로마 교황청은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가톨릭은 유럽에서는 쇠퇴를 거듭하는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날로 번성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들 지역은 가톨릭교회가 확장될 여지가 많은 동시에 보수주의의 아성이기도 한다. 이들 지역의 가톨릭 신도는 이혼자 및 재혼자에게 성찬식을 베풀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동성애자와 낙태를 혐오한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모집하기 어려운 수습 수녀 대다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가톨릭신도의 대다수가 집중된 지역은 다름 아닌 중남미다. 가톨릭교회는 중남미에서 유럽 다음으로 역사가 길다. 전통적으로 성직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인데, 인구 비중 때문에 스페인어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에서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도덕적 보수주의에 불편함을 느낀 많은

10) Ibid., p.188.

신도는 냉담자가 되었고, 수십 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개신교에 신도를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다. 개신교 선교 본부는 주로 미국에 있지만, 브라질에 있는 것도 있다. 한편, 로마교황청의 재정에 대한 기여도로 보자면 미국의 가톨릭은 독일의 가톨릭과 더불어 일등 공신이다. 돈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다. 미국 출신의 주교가 교황이 되면 다른 지역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교황으로 선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한 미국의 주교들은 최근 콘클라베에서 ‘킹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했고,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풀리타에 따르면, 이 미국 주교들이, 위신 떨어진 교황청 내의 주도 세력인 이탈리아 출신 주교들의 야망과 유력한 교황 후보인 밀라노 대주교 안젤로 스콜라의 야망에 맞선 사람들이었다.

일 년 전부터 교황직을 수행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이제는 정치적 부활과 지도력 회복의 예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또 구태의연한 제도에 맞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바티칸 시국은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특별한 경제사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sup>11)</sup> 또 행정기구, 수입 및 지출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정치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적·외교적 영역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퓰리즘은 부패, 권위주의, 비효율, 과도한 사회지출로 비난받고 있는 중남미 좌파 포퓰리즘과 정치체제와 유럽 연합 및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과 외국인 혐오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의 포퓰리즘과 달리 국제 사회의 호감을 사고 있는 듯하다.

로마교황청이 전기를 맞이했다는 결정적 근거는 대중 앞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일련의 제스처(교황을 얘기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덕분에 프란치

11) 교황청은 교황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고의 보답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이 사임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너스 지급 관행을 폐지했다.

스코 교황이 금세 정통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통성과 카리스마는 막스 베버의 정치사회학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현 교황에 대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정치 문제를 탐구할 때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게다가 카리스마라는 말은 베버 본인이 신학적 계보를 인정한 바 있듯이, 초기 기독교 담론에서도 나타난다.<sup>12)</sup> 프란치스코 교황의 카리스마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대한 도전에서 나온 다기보다는 간결하고 직설적인 언어에서 나온다. 보수적인 주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퓰리즘적 스타일과 지나치게 소탈한 언행에 대해 한탄을 늘어놓곤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언행이 교황의 신성함을 깎아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어떤 신도는 이를 두고 “이해가 되는 교황”이라고 표현하였다). 예견된 교리적 변화보다는 어조와 이미지의 변화가 교황이 거둔 갑작스러운 대중적 성공을 설명해주는 데, 이러한 대중적 성공은 쇠락의 끝이 보이지 않던 로마교황청으로서의 뜻밖의 일이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상징 효과. 종교와 정치』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는 베버가 말한 ‘유별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상적 질서의 수호자는 할 말이 전혀 없는 유별난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 과학적 분석은, 예언자의 말이 이전 전통(사제 전통이건 교과 전통이건)에 간혀 있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혀냈는데, 이런 사실은 예언자가 새로운 대중을 위해 난해한 메시지를 쉽게 풀어줌으로써 근본적인 새로움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평범한 언어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평범한 언어에 대한 비판과 위기에 대한 언어가 힘을 얻는다.<sup>13)</sup>

12) 베버에 관하여 다음의 글 참고, Norberto Bobbio, *Estudios de historia de la filosofía. De Hobbes a Gramsci*, estudio preliminar de Alfonso Ruiz Miguel, Debate, Madrid, 1985, p.275 y ss. Luciano Cavalli, *Carisma. La calidad extraordinaria del líder*, Losada, Buenos Aires, 1999, p.10.

13) Pierre Bourdieu, *La eficacia simbólica. Religión y política*, Biblos, Buenos Aires, 2009, p.86.

이러한 부르디외의 말처럼, 새로운 교황의 선출, 첫 행보와 그로 인한 효과는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경험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론적인 관심사이다. 비록 부패하였어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제를 등에 업고 바티칸 정부의 독특한 특징과 비록 부패하였어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제 덕분에 교황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용이했는지도 모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교황청의 수장 자리에 오를 때 자신을 로마의 주교(교황의 전통적인 직책)라고 소개하였는데, 이는 교황의 위엄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즉,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 권력자라기보다는 ‘동급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primus inter pares)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보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력을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라고 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교황은 여러 사람과 공조하여 바티칸을 이끌어간다는 표시로 8명의 주교를 임명하여 그들에게 쇠락한 바티칸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정치적 변화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가톨릭교회의 핵심 권력은 교황의 인성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 개인이 이러한 권좌에 오르게 되면 이름을 새로 바꾸고,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가톨릭의 보편적인 정치적 육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에른스트 칸토로비츠는 『왕의 두 신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중세시대(이사벨 여왕 시대까지 포함하여) 왕권의 이중적 본질이 촉발한 법률적 논쟁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자연적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체가 정치적이고 불멸의 육체와 결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치적 육체에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corpus mysticum)이 더해지게 된다(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과 부활하는 구세주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중세시대의 왕은 자신을 “통치하던 왕국의 교황”으로 간주하였

다.<sup>14)</sup> 권좌에 오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왕은 혼합 인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왕이 되기 전에는 갖추지 못한 일련의 세속적·영적 자질이 이 혼합 인간 속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이런 논쟁이 계속되었던 수 세기 동안 이런 문제는 분명 모든 유형의 복잡한 논증을 경험한 바 있다. 아무튼, 칸토르비츠의 주장은, 콘클라베 직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말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날 시기가 가까워져서 은퇴한 사제가 머무는 곳에 거처까지 마련해둔 베르고글리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베르고글리오가 교황에 선출되자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시절 예수회 관구장으로서 보여준 행동, 특히 자신의 관할 하에 있던 두 명의 사제가 고문을 당하고 가장 큰 수용소에 납치 감금되었던 사태 속에서 베르고글리오가 보여준 행동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종의 혼합 인간으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논쟁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다. 바티칸 당국은 베르고글리오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세(항상 능란하지는 않지만)를 시작하였다.<sup>15)</sup>

근대성은 또 다른 정통성의 원칙, 즉 인민(pueblo)이라는 원칙을 등장시켰다. 공화국의 주권은 왕조적 전통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닌 인민에 기반을 둔다.<sup>16)</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맨 처음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미 ‘인민’이라는 단어를 언

14) Ernst Hartwig Kantorowicz, *Los dos cuerpos del rey. Un estudio de teología política medieval*, Alianza, Madrid, 1985, pp.31 y 54.

15) 교황청 대변인은 오라시오 베르비츠키(Horacio Verbitsky) 기자의 비난을 “반교회적 좌파주의”와 결부시키면서, 교황명에 훼손으로 고발하였다. 한편, 이탈리아의 넬로 스카보(Nello Scavo) 기자가 쓴 정반대의 책은 가톨릭출판사가 재빨리 번역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의 서문을 붙여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베르고글리오가 정치적 피해를 위해 관여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Nello Scavo, *La lista de Bergoglio. Los salvados por Francisco durante la dictadura*, Claretiana, Buenos Aires, 2014.) 한편, 베르비츠키는 ‘헛소동’이라는 기사에서 이 책의 내용을 단호하게 반박하였다(Horacio Verbitsky, “Mucho ruido y pocas nueces”, en *Página/12*, 23/3/2014. <http://www.pagina12.com.ar/diario/elpais/subnotas/242457-67329-2014-03-23.html>).

16) Carlo Galli, *El malestar de la democraci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Buenos Aires, 2013.

급한 바 있고, 그 뒤에는 ‘하느님의 인민’이란 말을 한 바 있다. 이 ‘하느님의 인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핵심 표현으로서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의 신학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해방신학자들은 베르고글리오의 교황 선출을 반기지만 신학적 사고는 해방신학자와 다르다).<sup>17)</sup> 후기경 시절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대중적인 종교성 형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고는 베네딕토 16세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베네딕토 16세는 가톨릭교회의 오래된 전례 양식을 되살리고자 했으며, 뉴에이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에 대중음악을 도입한다거나 가톨릭 요소와 아프리카 전통을 결합하는 등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종교적 융합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베르고글리오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사목 활동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입장은 ‘큰 조국’이며,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sup>18)</sup> 지적 이력은 전임 교황인 라칭거가 워낙 뛰어난 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논객이었으므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베르고글리오의 자신을 전직 문학 및 심리학 교수로 소개하지만 저서를 보면 짧은 논문을 모았거나 수많은 설교를 엮어서 만든 책이다. 예수회가 교육과 과학에 치중한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서는 작가나 사상가의 책이 아니라 사목자의 책이다. 예수회 콜롬비아관구 관구장이 밝혔듯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학자라기 보다는 대중에 헌신하는 사람에 가깝다 [...] 가톨릭은 신학자만을 위해 존재하

17) 이 주제에 관련해 다음의 글 참고. Emilce Cuda, “Teología y política en el discurso de Francisco. ¿Dónde está el pueblo?”, en *Nueva Sociedad*, No. 248, noviembre-diciembre de 2013, pp.11-26. [http://www.nuso.org/upload/articulos/3987\\_1.pdf](http://www.nuso.org/upload/articulos/3987_1.pdf)

18) 한 예로 헤르만 카리키리 책의 서문을 참고. Germán Carriquiry, *Una apuesta por América Latina*, Sudamericana, Buenos Aires, 2005.

는 것이 아니다.”<sup>19)</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권력과 물질적 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도를 붙들어 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즉, 순전히 수사학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속적인 경제우선주의’에 맞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한편, 아감벤의 분석처럼 종말의 시대에 직면하여 참신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도는 1960년대 요한 23세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소집했을 때 추구하고자 한 유형의 갱신(aggiornamento)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재앙의 결과로서 빈곤과 불평등이 국제적 아젠다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온 지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서구 정치이론이 그동안 가톨릭교회에 보여준 무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하고 또 대다수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115명의 원로 주교가 참가한 콘클라베를 계기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인 가톨릭교회가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반면에 많은 선진 민주국가는 국민의 불신과 선거 무관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완 옮김]

19) Entrevista a Francisco de Roux reproducida en el sitio web de la Compañía de Jesús en Colombia, 18/3/2014, fecha de consulta: 2/6/2014. <http://www.jesuitas.org.co/749.html>